

자연의 소중함 '범어' 로 일깨웠어요

독일 작가 스톨한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작품 기증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했던 독일 작가 가 범어사성보박물관에 레고 작품을 기증해 화제다. 유르겐 스톨한스(Jurgen Stollhans)는 지난 4개월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문화와 친숙해졌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자신의 작품 '범어'로 완성한 것이다. 여기서 범어는 범어사의 전설에 나오는 물고기를 의미한다.

스톨한스는 부산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지칠 줄 모르는 한국의 민속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두 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 하나가 통신기술의 미학 너머에 있는 한국의 시각적 정수를 포착한 드로잉 시리즈이며, 다른 하나가 대형 물고기 '범어'이다.



유르겐 스톨한스의 '범어'

글씨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에게서 받은 서예 글씨를 스캔 받아 작품화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의 작품에 왜 '다시 콘크리트로'라는 문구를 새겼을까?

템플스테이 경험 등을 살려 레고로 대형물고기 제작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박민희 씨는 "일종의 반어법이다. 자연의 반대 콘크리트를 패러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유르겐 스톨한스는 부산에 와서 수많은 공사현장들을 목격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케치프레이즈 문구를 패러디하게 된 것이다. 작품은 산업화·근대화 이전의 삶 그 자연을 찾아 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1월 31일 범어사성보박물관에 기증된 '범어'는 옥스퍼드사의 블록 75000여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범어사 근처 산 속에서 나타난 금어의 신비스러운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작가가 템플스테이 체험 등의 느낌을 드로잉과 메모로 남겨두었다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물고기의 크기만 키운 대형 장난감과는 차별화를 이룬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현대인들에게 문명의 틀을 깨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작품 정면에는 '다시 콘크리트로'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서예체로 새겨진 이

동경으로 만나는 옛 이야기

통도사 동경전...5월말까지

'제 10회 작은 전시회 - 통도사의 동경(銅鏡)'전이 5월말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동계팔능형꽃과새무늬동경과 동계쌍용운무늬동경 등을 만날 수 있다.



고려의 동계쌍용운무늬동경(銅鏡雙龍雲文銅鏡)

설명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 동경은 자신을 바로 잡는 도구이며, 삶의 다투리를 뱉어 내고, 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했던 유일한 통로였다. 우리네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비추는 소품 동경을 통해 조상들의 자취를 느껴 보는 것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055)382-1001 정혜숙 기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라면 ~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북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보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안상(眼象)→영기창 ㉔

'안상(眼象)'은 아무 의미 없는 말

2005년에 처음으로 안상(眼象)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누구에게 물어도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흔히 한자 용어를 직역하여 '코끼리 눈'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예술품에 거의 반드시 있는 안상이란 그 정체가 무엇일까?

안상(眼象)에 대해서는 다행히 진흥섭 선생님이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 (일지사, 1997)라는 책의 「한국의 眼象文樣」이라는 논문 서두에 일본학자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그 용어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여 놓았다. 그러나 일본의 학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학계는 일본학자들이 풀어놓은 오류를 답습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에서 '眼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까닭은, 한국에는 적당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자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일본 용어를 택한 셈이다.

일본학자들의 오류 중 하나 '영기창'으로 제자리 찾아야

일본의 제1세대 미술사학자, 이시다(石田茂作)씨는 역사적으로 두 용어가 있는데, '牙床'이란 명칭이 일찍이 나라(奈良)시대에 쓰여졌고, 말기에는 '牙象'이란 용어도 병행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목공예의 상다리(床脚)에 장식 혹은 보강의 목적으로 부가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두 용어를 모두 음독하여 게쇼(ge-sho) 혹은 겐쇼(gen-sho)라고 읽는다고 한다. 그런데 후지와라(藤原)시대 말기부터 같은 음과 같은 글자로 眼象이란 한자 식 표기가 등장하는데 발음이 이상의 두 용어와 같은 gen-sho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眼象은 뜻이 아무 것도 없는 일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발음만 같은 이두 같은 셈이다. 이시다씨는, 한국의 고분벽화나 불상대좌에 보이는 것을 보면 꼭 동물의 이빨(牙)를 연상케 하여 아상(牙床)의 명칭에 알맞다고 했다. 안상 자체를 일종의 장식으로 생각하였지 그 자체에 특별한 뜻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했다. 마치 '공간을 매우기 위한 번다한 안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중국·한국·일본의 학자들은 안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조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영기창(이후부터 이 글에서 '안상'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한다)의 개념을 목가구인 평상에서 찾으려 했으므로, 다른 장르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형태의 아름다운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영기창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영기창에서 만물이 탄생하여 나타난다

우선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안상(眼象)'을 '영기창(靈氣窓)'이란 용어를 만들어 그 까닭을 설명해 나갈 생각이다. 이른바 세간이나 학계에서 흔히 부르는 '안상'은 불상대좌나 석탑, 도자공예, 금속공예 그리고 목조건축 등, 모든 장르에 수없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상점을 띠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어떤 장르이건 안상은 맨 밑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조형임을 암시한다. 안상이란 단지 보강도 장식도 아니다. 그러한 형이하학적 차원을 넘어선, '최고의 형이상학적 영기화생의 도상을 이루는 조형'이 바로 영기창이다. 영기창은 아름다운 다양한 영기문(靈氣文)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은 무한한 우주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공간 안에서 비천이 나타나 날며 용이 나르며 사천왕이 나타나 위엄을 부리며, 여래가 현신하여 앉아 있으므로, '영기창을 통하여 모든 존귀한 존재가 영기화생하는 경이로운 광경'이다. 영기문에서 만물이 탄생하듯, 영기창의 공간에서 만물이 탄생하여 나타난다.

특히 불상대좌나 불단 등 목가구를 영화시키기 위해 정교한 영기문을 부여한다. 즉 영기문을 그대로 부재로 만들어 가구를 만든다, 건축의 부재를 영기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가 처음 영기창이라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수덕사의 고려시대 불탁에서였다.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제 목공예는 물론 모든 장르의 영기창은 영기화생론으로 풀이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고려 7세기의 쌍영총 벽화에서 주인공이 앉은 평상(床床)과, 수덕사의 고려시대 불탁(佛卓)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곁들여 한다.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살펴보기 바란다.



강우(梁)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고구려 쌍영총 주인공이 평상 위에 앉은 초상화



수덕사에 있는 고려시대 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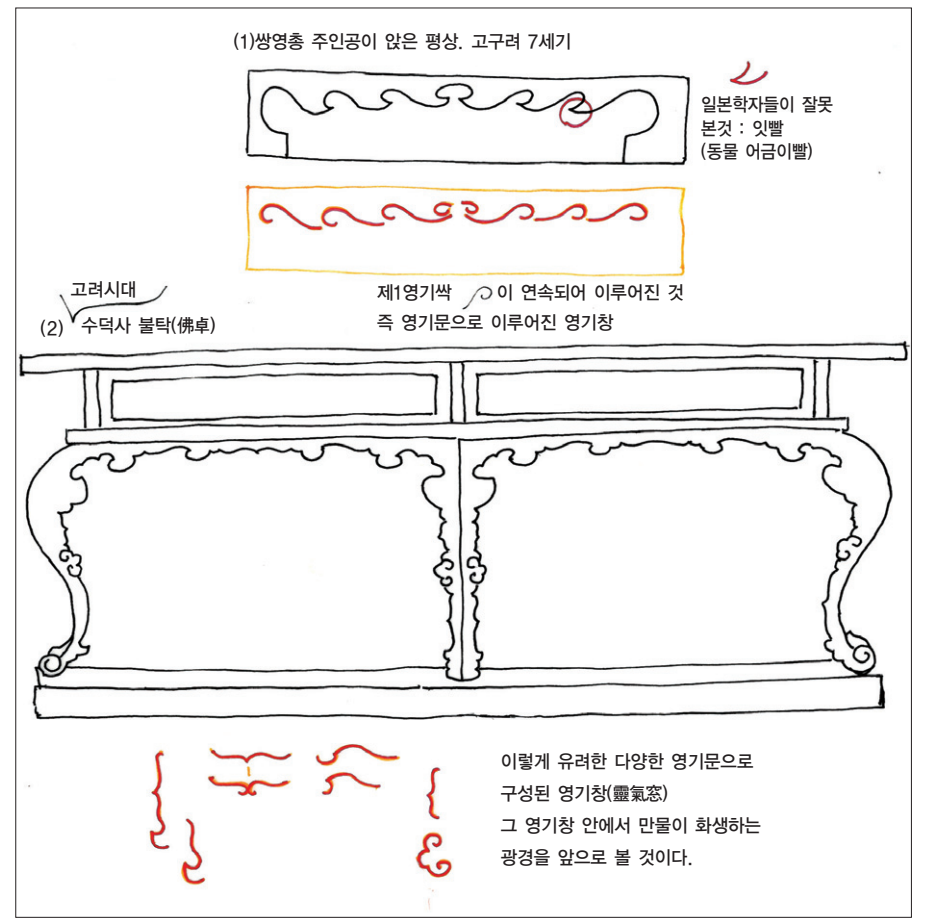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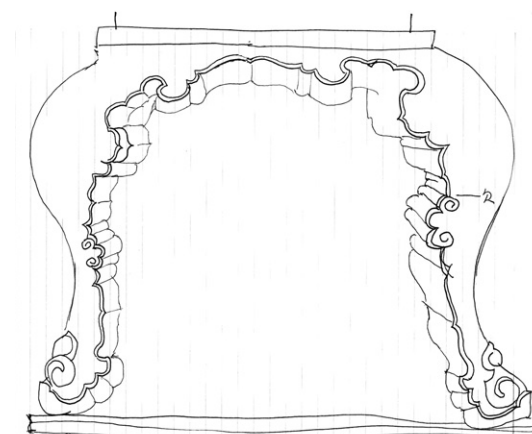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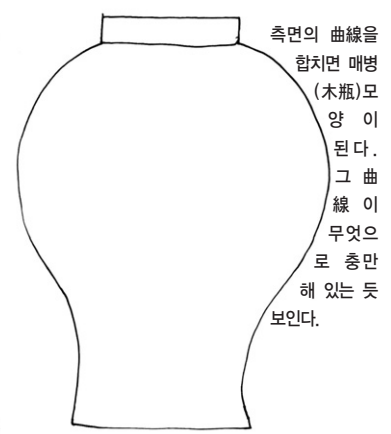


그림 ①, ②의 도면과 영기창 설명



수덕사 불탁의 측면 스케치



불탁 측면 곡선에서 취한 형이리 모양

사찰 연등 및 전선(범등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고추구 12E 3구 인자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포) 발판사다리

DWKS-108A DWKS-108B

DWKS-3000A DWKS-3000B

A형 B형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I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등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인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들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방생, 탈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